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주일에배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서울 교회	02) 533-9191
주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주일에배	3부(오후) 2시
	수요일배 저녁 8시 30분
	금요일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1년 3월 28일 (제1090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컬럼

좋은 친구, 책

손자 녀석이 자기는 친구가 없다며 낙심하길래, “왜 친구가 없어? 책이 있잖니? 그 안에서 만델라도 네 친구가 되고, 링컨도 네 친구가 되고, 청기조칸도 네 친구가 될 수 있는 거란다. 네 또래의 친구들은 싸우고 때론 등질 수 있지만, 책 속에 있는 친구는 절대로 너를 배신하지 않고, 네게 한없이 유익한 친구란다.”라고 말해줬다.

그렇다. 가장 훌륭한 벗은 책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처음 책을 읽을 때에는 한 사람의 친구와 알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읽을 때에는 옛 친구를 만나는 것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지금도 책을 많이 읽는다. 책을 통해 그들의 노하우를 값없이 얻고, 그들의 경험담을 통해 실패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책을 통해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접할 수 없는 세상으로 여행을 한다. 세월이 가면 키도 자라고 몸무게도 늘어나듯, 나이를 먹어가면서 정신도 생각도 성장해야 한다. 그 성장을 돕는 촉진제가 바로 책이다. 책을 통해 정신과 생각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넓어지게 된다. 그런데 요즘 종이 문자를 구시대 산물처럼 여기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세상이 개벽한다고 해도 종이 문자로 하는 독서는 지성이 가득한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임에 변함없다.

누구에게나 자신을 변화시킨 한 권의 책이 있다. 물론 나에게도 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 이는 책 중의 책이요, 진리 중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책이 마음의 양식이라면,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다. 그 안에서 믿음의 선친인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울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그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그들로 인해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라.’며 성경을 상고하라고 강조한다.

책을 많이 보라. 그 안에 좋고 유익한 친구가 있다. 성경을 보라. 너의 삶이 바뀔 것이다.

다투면 방축에서 물이 샌다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해 목사님은 진정 행복한 삶에 대한 지혜를 가르치셨다.

“성경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한 사용설명서입니다. ‘애들아,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아니? 진정한 행복이란 자신에 맞는 달란트를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란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기뻐합니다. 서로 다툼이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동업자끼리도 서로 협업하고 독려하며 상생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오죽하면 성경에도 ‘다투는

니다. 따라서 분쟁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를 떠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 번성하여 소떼, 양떼를 비롯한 자산이 증가하자 조카 롯과 함께 동거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지요. 가족의 목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

어와 데려가며 상황은 종료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다른 사람과도 다툼이 있어서 경찰이 출동하고 함께 불려가 조사를 받곤 했다고 하더군요.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괜히 자존심에 맞섰다가는 별수 없이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그러다보면 중요한 약속도 갈 수 없고, 오늘 같은 경우 수요일예배에도 나오지 못하게 될 거 아닙니까? 큰소리치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왜 쓸데없는 분쟁에 휘말려 개망신을 당합니까? 성경도 말합니다.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 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잠26:17). 개 귀 잡아보



KBS 88체육관 예배 광경

여인과 함께 큰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잠25:24)고 할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마12:25). 역사적으로도 아무리 강대국일지언정 내부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멸하고 맙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잠17:14)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견고한 방축일지라도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 독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막으려야 막을 수 없습

다면 나는 좌하리라’(창13:8~9). 그런데 이처럼 분쟁의 근원을 제거하려면 통 큰 양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통 큰 양보를 합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한쪽에서 피하면 소리가 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루는 사우나에 갔는데 술에 잔뜩 취한 한 젊은이가 되나가나 시비를 걸고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다가와 병을 들고 겁박을 하기로 얼른 그 손을 잡고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상스러운 말을 해대며 시비를 걸었지만 나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관리인에 들

세요. 어떻게 되나.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겁니다. 중국의 한신 장군이 어린 시절 동네 강패의 바짓가랑이 사이를 기어서 지나간 이유가 뭡니까? 순간의 감정에 욕하며 나섰다가는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낮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16:32)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툼은 공멸입니다. 거센 파도를 잠재우는 모래처럼 넓은 마음, 통 큰 자세로 분쟁을 잠재우고, 협력하고 상생하는 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주일에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 대면예배)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2시

수요일배 저녁 8시 30분 문의: 02. 533. 9191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딤후4:1~8)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우리는 지난주 'The Passion Of The Christ'에서 예수 역할을 했던 짐 카비젤 (Jim Caviezel)의 간증이 담긴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인 멜 깁슨(Mel Gibson)은 사비를 털어 이 영화를 제작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 카비젤에게 출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예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 같았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도 아니고, 성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민 끝에 출연을 결심하던 날, 감독인 멜 깁슨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는데 '당신이 이 영화를 찍으면 더 이상 배우 생활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짐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간 자신 이름의 이니셜이 'J. C. (Jesus Christ)'라는 것과 자신의 나이 역시 33살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짐은 하나님의 일에 우연은 없다고 믿고 출연을 결심했고, 대본을 받아들였습니다. 영화는 그렇게 크랭크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촬영 시작부터 짐의 어깨는 탈구되어 고통스러웠고, 주요 언론에서는 멜 깁슨 감독이 '반 유대주의자'라는 소문과 함께 비난과 헐박이 이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짐은 채찍에 맞는 장면에서는 통역이 원활치 않아 진짜 채찍을 맞고 등이 찢어져 쓰러지는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이 영화를 찍을 때 고생했는지는 그의 몸무게가 91kg에서 76kg까지 준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유능한 해군을 만든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그의 몸은 분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푸른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부딪칠 때마다 그의 어깨는 거의 마비 수준이었고, 그의 정신은 혼미했습니다. 짐은 그 와중에 자신의 심장에 이상이 있음을 직감했는데, 의사는 진찰 후에 짐이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사의 경고에도 그는 촬영을 계속하겠노라고 했고, 산에 오르는 장면에서 마귀가 "넌 이제 죽을 거야."라고 계속 헐박했으나 그는 그것이 최고의 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짐은 이미 예전의 짐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인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천둥 번개가 일었으나 짐은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편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짐을 감쌌고, 사

람들은 그의 몸을 둘러싼 광채를 봤습니다. 짐은 이 영화를 통해 짐 카비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진실된 마음을 아시고 당신이 겪은 고초를 겪게 하사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듣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아무 감각도, 아무 감동도 느끼지 못했다면 당신은 영적 문둥병자입니다. 저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유언으로 '이 영화를 꼭 보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저는 짐 카비젤의 간증을



총회장 이초석 목사

들으 면 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자주 했던 말들과 어쩌면 이 리 일치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마귀도 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기 전에는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짐이 'The Passion Of The Christ(예수의 고난)'이라는 영화를 하려고 마음먹자 바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못하게,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차에 걸쳐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를 할 때마다 날씨가 참 알맞았습니다. 꼭 바람이 불고 집회 당일까지 비가 왔습니다. 마귀가 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당일 비가 멈추고 태양이 작열하여 미세먼지가 지 없애주시며 청명한 날씨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가려고 하면 갑자기 애가 아프고, 안 믿던 자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 사

업이 갑자기 미끄러지는 일 등, 일련의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때 쓰러지고 낙담하면 안 됩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리듯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길을 가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것이고, 짐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둘째,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짐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을 원하지만, 고난 받는 것은 원치 않는다." 올림픽에서 고난 없이 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 원하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고난은 거부합니다. 노아처럼 의인의 후사가 되고 싶

어 하 지 만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은 싫어합니다. 다들 부활

에 동참하고 싶어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일 앞에서는 도망칩니다. 그러나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날이 다가오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요12:2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영광이 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롬6:5),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롬6:8)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의 죽음에 동참해야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편하고 좋을 때만 크리스천으로 산다면 영원한 크리스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눅9:24)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그러

므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고, 고난이 유익이라 여기며 감사하며 묵묵히 걸어갑시다. 밤이 깊으면 곧 새벽이 오니까요.

셋째, 대충해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짐은 말합니다. "운동선수가 일주일에 한 번 연습해서 메달을 딸 수 있을까?" 매일, 그것도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 계속, 맹렬히 연습해야 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 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들림 받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지지고 볶는 것은 하늘나라에 안착시키려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상과 면류관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편안한 삶은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승자는 끝까지 인내한 자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던 예수님과 가롯 유다의 모델이 동일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예수님의 모델이 되었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다 보니 가롯 유다와 같은 얼굴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가롯 유다를 지탄하십니까? 그러나 누구나 가롯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충만을 잃으면 예수에게서 등을 돌리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짐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 땅에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도, 세상에서 잊혀진 이름이 될지언정 하늘나라에 내 이름을 기록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도록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롬14:8).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전파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첫째 사망(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히9:27), 둘째 사망(영혼의 심판)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예수를 위해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내 이름이 생명록에 새겨지도록 주를 위해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짐 카비젤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지 않으시렵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8:18).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자

지난 2014년, 목사님은 새해 슬로건으로 'New Start, 다시 시작하는 30년'으로 정하고, 우리 모두 현재 나이에서 30년을 잘라내고 다시 뛰어보자고 역설하신 적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며,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를 고친 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말씀은 다시 시작하라는 예수님의 격려라고 말씀하셨다.

지난주일, Passion Of The Christ의 주인공 Jim Caviezel의 인터뷰 영상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였다. 영상 편집을 위해 자막 작업을 다시 하다가 받은 은혜가 커서 함께 나누고 싶다.

인터뷰 후반부에 Jim은 우리 세대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이런 말을 한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5:28) 하셨거늘, 죄에서 자유로울 자 누구이겠는가?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롬3:10)'고 말씀하지 않는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죄를 씻을 수 없고, 의인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율법을 제 아무리 지킨다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주앞

에 나가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럼 Jim의 이야기로 돌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믿음이다. 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니 성전에 들어가 죄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잔뜩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서는 다시 그 짐을 도로 지고 성전을 나온다고 하지 않던가? 결국 하나님의 용서, 그분의 자비와 긍휼하심, 사랑의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다시 시작하라'는 외침과 그 격려는 '이전에 네가 행한 일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왜냐하면 죄의 기억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왜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안에서 비고 돌고 했을까? 약속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 앞의 두려움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 노예시절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이다.

목사님 말씀처럼, 강을 건넌다면 뗏목은 버려야 한다. '일어나 걸어!' 라고 외치시는 우리의 코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일어나 다시 시작하자!

Henry Han

henry8829@naver.com

:: 성경에세이 ::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게

여보게!

예전 개성상인들은 계산이 확실하기로 유명했다네. 어느 개성상인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천 냙을 꾸었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버지 돈이라고 떼어먹을 생각 말고 약속한 날짜에 꼭 갚아라.'고 자주 말했지. 아들은 아버지가 야속했던지 돈 갚을 날이 되자 천 냙을 일 전짜리로 갚았다네. 천만 원을 100원짜리 동전으로 갚은 셈이야.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개성상인인 아버지는 그걸 알아서 다 세더라는 거지. 아버지 왈, "부자지간에도 돈은 세서 주고받아야 한다."였다네.

맞네. 확실하게 하는 게 좋아. 대충대충 해놓고 뒷말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확실하고 세밀하게 하는 게 탈이 없고, 뒷말이 없지. 무언가 계약할 때도 이것저것 따져보고 해야 하네. 친구가 하니까 대충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면서 넘어가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치거든. 그게 까다로운 게 아니야. 정확한 거지.

좋은 사람보다 분명한 사람이 돼야 하네.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인생은 분명히 엉망진창일 거야. 예전에 내 차로 어느

장로와 함께 오다가 내가 "어디에서 내려줄까?" 했더니, "아무 데서나요." 해서 그를 고속도로에 내려주고 왔네. 버스도 없고 택시도 없는 곳에 내려줬으니 고생 많이 했을 거야. 다음 날 내가 전화해서 "사람이 분명해야 하는 거야. 난 죄 없네. 아무데서나 내려달라고 해서 그런 거니까."라고 했더니, 그 장로가 깨달았다고 하더군. 나는 손주들에게도 "뭘 먹을래?" 해서 "아무 거나요." 하면 주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야. 내가 냉정하다고? 아니야. 냉철한 거지.

여보게!

신앙도 마찬가지야. 한 발은 세상에, 다른 발은 교회에 걸치고 있는 사람이 있네. 그러다가는 가랑이 찢어지고 말지.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24:14~15)는 당당한 믿음, 확실한 신앙관을 가져야 하네. 대충대충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경고 말씀이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움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계3:16). 매사 분명하고 정확한 사람이 되게.

朋友

범사에 감사하라

미국의 앨라배마는 목화 재배가 주요 산업이었으나 1895년에 난데없는 목화 벌레 폐의 극성으로 기근과 실직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재앙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목화를 심던 밭에 땅콩을 심어 성공의 길을 찾아 세계적인 땅콩 생산지로 만들었다. 그곳의 소도시인 엔터프라이즈에는 다음과 같은 감사시를 적은 비석이 세워져 있다.

"우리는 목화를 갈아 먹었던 벌레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 벌레는 우리에게 번영의 계기를 주었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주었다. 목화 벌레들이여! 다시 한번 그대들의 노고에 감사하노라."

촛불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일곱 날의 빛을 주실 것이다.

감사는 예방 주사와 같고, 항생제와 같고, 방부제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감사를 잃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시선과 마음을 빼앗김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을 잃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롬1:21~23).

마귀는 범사에 불평하게 한다. 그러나 성령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다. 당신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살 것인가?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주위 사람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 잊지 말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살전5:18).

감사는 능력이요, 행복한 삶을 약속하는 열쇠이다.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낮은 울타리 ::

Why Jesus?

세상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교회 이야기를 종종 꺼내곤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 이제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친구들이 항상 마음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교회에 다니라는 제 말에 친구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교회 가는 거 천국 가려고 가는 건데 난 아직 멀었으니까 나중에 갈게."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죽은 후 천국을 위해 교회에 가기엔 너무 시간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스스로 '꼭 그것 때문에만 교회에 오라고 하는 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불쑥 듭니다. 또 다른 한 친구는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저에게 "천국에서 부자 되려고 열심히 교회 가는 거야?"라며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도 '그것 때문에만 오닌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천국을 가기 위해, 상급을 쌓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는 꼭 '천국'만 존재하진 않습니다. 물론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 그 한 분

이면 죽은 후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장 이 세상에서도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찬양할 때 넘치는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또한 신앙생활이 겉으로 보기엔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게 훨씬 많습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께 더 드리려고 해도 결국에 예수님은 내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떠날 수 없고,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으므로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네가 맛집 추천하는 거랑 똑같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기 마련입니다. 하루빨리 그 즐거운 경험을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죠. 이것처럼 저도 경험해보니 너무 좋은 예수님을 더욱 소문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맛집인 예수중심교회도 함께 소문내고 싶습니다. 진짜 음식이 맛있으니까요.

장수정

sjjang50@gmail.com

:: 에덴으로 귀환 ::

:: 참된 깨달음 ::

최고의 인재상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을 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담당 업무에 대해 충분한 자질이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과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능력보다 인성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아무리 관련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해도 인성이 형편 없으면 그 사람은 회사 일에도 지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과 잦은 마찰로 종종 물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지원자의 태도나 말투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의 생각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우리 회사를 스쳐 지나간 직원들 대부분은 일이 험하고 힘들어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조항사가 되고 싶어서 입사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조항사가 되려면 최소 3년의 기간 동안 충분한 훈련을 거쳐야 하지만, 번지르르한 겉모습만 기대했다가 그만 포기하기 일쑤였습니다. 또 어떤 직원은 학교 성적, 토익 점수, 이력 등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꽤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윗사람에게 버릇없이 행동하고, 매일 불평불만에 잦은 지각

이 일상이 되어, 옆에서 지켜보는 동료 직원들이 다들 힘이 빠질 정도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선 자매와 제 동생인 대박이는 우리 회사에 입사한 지 각각 5년, 4년이 되었는데, 저의 왼팔이고, 오른팔입니다. 그 두 사람은 아침 8시 30분이면 사무실에서 일과를 준비합니다. 문선 자매는 우리 회사에서 저 다음으로 높은 직위를 가졌지만, 사무실 청소, 꽃 물주는 일, 쓰레기 버리는 일, 정리 정돈 등 부하 직원들이 해야 할 일들도 본인이 솔선수범합니다. 대박이는 영업, 마케팅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힘쓰는 일은 도맡아 하고, 생산 설비 청소나 점검, 생산, 업체 관리, 심지어는 연구팀이 해야 하는 벌크 제조나 연구실 기기 설비 점검도 나서서 합니다. 게다가 큰 프로젝트나 발주가 들어오면 둘이서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스케줄을 맞춥니다.

우리는 처음엔 서로 빼격거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법 합이 잘 맞고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우리는 일이 힘들 때마다 항상 총회장 목사님의 가르침을 지표로 삼았습니다. 한 번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볼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고, 제품 개발이든 생산이든 일을 따지지 않고,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고 작았던 회사를 이렇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모두 총회장 목사님의 가르침이 몸에 배 모두가 최고의 인재상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은 일을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라고 하였고,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웃음은 최고의 스펙이라고 하시고, 똑똑한 자보다 정직한 자를 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상 1위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 최고의 인재상은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정직한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이런 인성을 갖춘 사람들이 바로 기업을 더 크게 성장시키는 최고의 주역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전7:28).

김은유 집사
ceo@edenique.co.kr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 한라에 핀 사론의 꽃 ::

기쁨의 가치와 방향성

지난 한 주 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일 가운데 나를 기쁘게 만든 일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나에게 가장 기뻐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의외받았던 통계분석 보고서 제출일이 한 주 미뤄진 일이다.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마무리 지어야 하는 일인데도 시간에 쫓기면서 작업하다 여유가 주어지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기뻐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혹자는 오랫동안 바라던 것을 성취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들과 강한 유대감을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일수도 있다. 이렇게 거창한 일은 아니더라도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기쁨을 느낄 수도 있다.

우리를 웃음 짓게 만드는 여러 이유는 우리의 얼굴이 서로 다른 것처럼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맛보게 되는 기쁨의 경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있어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기쁨인지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

성경에는 기쁨과 관련된 많은 교훈을 언급하고 있다. 육체적인 기쁨, 일시적인 기쁨, 어리석은 기쁨 등 일정한 한도나 한계가 있는 기쁨도 있지만, 최후에 누릴 기쁨, 우리 장래에 얻을 기쁨 등 영적이며 영원한 기쁨도 있다. 특히 사도바울이 쓴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쓰인 글 중 하나로 당시 죄수의 신분으로 쓴 글이지만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마친다. 대체 무엇이 옥중에 있는 사도바울을 기뻐할 수 있게 했을까? 성경을 보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기뻐했다기보다 기쁨의 근원인 그리스도를 알았기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은 처한 형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에서 시작되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살전1:6)고 성경은 말한다. 또한, 성도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 내가 어떤 것에서 기쁨을 취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유명한 글 중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라는 말이 있다. ‘기쁨’을 미래의 일로만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깊은 기쁨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최고의 보물로 드러낸다. 따라서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이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4:4).

코로나바이러스로..., 행복의 가치가 돈과 연결된 지금, 온 세상의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듯하다. 수입은 줄고, 뺨뚫린 지갑과 통장잔고, 미간의 주름, 그리고 공허한 마음, 줄어든 웃음. 좀처럼 기뻐할 이유를 찾기 힘든 요즘, 묵상하기 딱 좋은 성경말씀 빌립보서. 새로이 시작하는 한 주는 빌립보서를 통해 사도바울의 기쁨이 전염되어 여러분의 얼굴과 마음에 기쁨을 되찾길 소망한다.

Dr. 권정미
jmgood77@gmail.com

소화된 사고, 묵상

어떤 그리스도인이 유언비어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루는 기도원에 들어가 울면서 기도를 하던 중, 오랜 시간이 흘러 마음속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처음에는 몹시 실망스러웠지만 깊은 묵상 가운데 ‘그렇지. 세상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며 받아들이는 그 순간, 마음 가득 평안이 찾아왔다. 율법적으로 ‘세상에 그릴 수가 있느냐?’며 원망할 뻔 고통스러웠는데, ‘그럴 수도 있지!’라며 복음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늘 평강이 도래된 것이다.

묵상(시1:2)은 본질적으로 ‘소화된 사고’라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넣고 거듭거듭 생각하는 것이다. 묵상은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 소는 풀을 먹고 나서 그것을 첫 위장에 보내고 드러눕는다. 그리고 먹은 것을 다시 입으로 올려 씹고 다시 삼키며, 이 소화 과정을 3번 되풀이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소의 그 큰 몸이 어떻게 풀만 가지고 지탱하는지 의문이 풀리기도 한다. 풀을 씹고 또 씹는 과정을 통해서 소는 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다른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일회적으로 편리한 것들을 매우 좋아한다. 인스턴트식품이 범람하는 것도 바로 이런 심리를 반영한다. 이런 현상이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그 결과는 상당히 심각해진다. 그것은 현상적이고 외부적인 조건에 좌우되므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통찰이 결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향한 존중과 비난, 긍정과 부정의 반응에 따르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현상이 아닌 참된 평안을 통해 승리를 얻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쁜 일손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김질하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김정옥 전도사

